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다. 실패한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요엘2:28을 가지고 한 첫 설교가 이것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 구두수선공으로 살던 윌리엄 캐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선교사가 되어 인도를 살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해보라”

20세기 세상을 바꾼 에디슨이 한 말 중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다. 노력을 강조한 것 같지만 사실은 1%의 영감을 강조한 것이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1%의 영감이 있다고 했다. 그 영감의 비밀을 자기의 기도라고 했다. 80대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에디슨을 보고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고 했다.

본문에 85세였던 노인 갈렙이 중요한 선택과 도전을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이 살던 땅을 자기가 정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다. 이 헤브론은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 중에 열 명이 그 땅은 절대로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보고를 해서 전 이스라엘이 통곡하며 절망했던 땅이다.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야 할 지금도 결단하지 못하는 땅이었다. 이 땅이 예루살렘 주변이 되고, 그 갈렙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땅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이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

문제를 당한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절대 미래를 위한 기회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남에게 미루고,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때 헌신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

1. 이런 헌신과 도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단어로는 열정이고, 영적으로는 믿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근원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다.

1) 예언된 언약이다. 영원한 해답과 영원한 결론에 대한 언약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언된 언약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고 했다(암3:7).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반드시 세가지를 찾아내야 한다.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이고, 깨닫고 갱신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놓고 도전할 것이다.

① 그 예언된 언약 속에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 세가지를 해결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불신양하고 불순종해서(원죄), 하나님 떠나서(저주), 세상과 마귀에게 놀려사는 인생이 된 것이다(영적문제). 이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가나안이다.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먼저 깨닫고(요8:56), 모세가 깨달은 것이다(출3:18).

② 이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우리를 통해서 천하만민, 땅의 모든 족속을 살리시겠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하신 약속이다(창12:1-3). 나를 살려 세상을 살리고, 나를 축복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신 다시 강조해주신 것이 마28:18-20, 행1:8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간이 열려야 한다(행1:11, 계21:5). 영원한 결론이다.

2) 성취된 언약이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라고 한다. 성경은 언약과 함께 증거를 기록한 책이다.

①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깨닫고 묵상해보면 이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것이다(고전15:3-8) 바울이 그 그리스도가 내게도 오셨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다.

② 갈렙은 어떻게 성취된 언약을 잡았는가?

먼저는 모세를 통해 전달 받았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자기 삶에서 이 성취된 언약을 확인한 것이다. 어려운가? 문제 아니다. 우리가 또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 증거를 얻는 시간이다.

3) 계속 성취될 언약이다. 다 성취되었는데, 성취할 것이 또 있는가?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언약이다.

우리는 가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준 언약이 그들 속에 계승되고, 또 성취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① 갈렙은 이 가나안에 언약의 계승자로 남겨질 램넛트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도전한 것이다.

②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헤브론 땅을 선택하고, 헌신한 것이다.

이 갈렙의 사위인 웃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 그 땅이 정복되고, 그 아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는 것이다.

2.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땅을 정복할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품고 도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했다(빌2:13)

1)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훈련하면 된다.

하늘 배경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가로막는 원수 마귀들이 무너지고, 모든 문들이 열리는 것이다(마16:19, 계3:8). 이것이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할 영적 기도이다.

2)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충만이 체험되고,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85세의 노인이 어떻게 40대와 비교를 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아낙 산지는 견고한 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은 것이다(12절). 24시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막을 자는 없다(사40:31).

3. 이 언약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리면서 세가지를 도전해보라(미션).

1) 남이 하지 않고, 남이 가지 않는 길에 도전하라(Nobody의 길). 그것이 오직이 된다.

오직 복음으로는 가능하다. 다민족과 237 모든 민족도 이 복음으로 살리고, 이 복음으로만 치유할 사람이 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고민해보라. 그런 고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고민이다(고후7:10)

2) 내 주위의 버려진 곳, 빈 곳을 향해 도전하라. 그것이 유일성이 된다.

복음 가진 내가 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 그들을 위한 복음 콘텐츠도 필요하다(미디어 사역) 잃어버리고 펍박을 받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다(막10:29-31)

3) 내 주위로 사람을 모으실 것이다. 플랫폼의 축복이고 그릇이다(사60:1-4). 세상을 살리는 재창조가 이루어진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Transmission). 조금 발판이 되어 주는데(Leverage), 그들이 또다른 제자로 서는 것이다(Outsourcing).

결론-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역사를 만든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분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들의 도전에서 시작된다.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